

신앙의 자양분이신 어머니께

우길순 율리아나 / 목도

어머님!

계신 그곳에서 평안하신가요?

어머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도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니 어머님께서는 곧바로 서울 창동성당의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을 하셨지요. 6개월의 교육 기간 어머님은 저와 함께 교리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열심히 덕택에 교육에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었고 세례식 때는 개근상도 받는 준비된 가톨릭 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율리아나’ 성인의 이름으로 멋지게 다시 태어났고, 어머님 소망처럼 성당서 결혼을 하고, 야고보와 함께 견진성사를 받으며 믿음의 맛을 신앙의 멋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손주는 주님의 선물처럼 태어났고 요셉의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새벽이면 촛불을 밝히시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목주신공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 깊은 믿음에는 아가다 어머님 당신께서 체험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지요. 일찍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고생 안 해 본 일이 없다고 하셨지요.

삶의 고단함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님을 중풍으로 쓰러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을 애타게 부르며 일어나야 한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님께 힘을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퇴원해 집으로 돌아와 자리보전하고 누워서도 눈물로, 기도드리며 왜 저에게….

하느님 열심히 믿고 산 제게 이런 고통을 왜 주시냐고….

하소연 섞인 기도, 원망 가득한 기도,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울며 주님께 기도를 올리셨지요.

왜? 왜? 저에게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절망과 고통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지요. 고통 속에 자만이 있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음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희망을 부여잡고 더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며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지요.

“주님!! 제게는 자식 둘이 있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어나 그 자

식들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주시고 힘을 주세요. 저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

기도와 함께하는 생활이 이어지고 잠자리에서는 베갯잇을 적시며 기도하셨지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주님을 애타게 찾으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흘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어머니 등 뒤로 뜨겁게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듯 놓이면서
“아가다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거라. 왜 누워 있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천둥소리처럼 귀에 꽂히듯 들으셨지요. 그것은 아가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우리 주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힘주며 말씀하셨지요. 불에 데인 듯, 등이 너무 뜨거워서 누워 계실 수가 없다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바로 찹쌀 인절미 떡을 준비해서 요기하며 담벼락 담장을 잡으면서 운동을 시작하셨지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온 힘을 모아 걷는 운동을 하셨지요. 결코 물러설 수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나동그라지고, 피눈물 나는 시간들을 견디시고, 통곡하며 주님께로 기도와 함께 더 다가갔지요.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마음속으론 희망의 끈이신 주님께 의지하며 걷는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지요. 그건 아마도 요즘의 물리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벼락 담장이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믿음의 지팡이에 의지하며 기도 속에 열심히 운동하셨습니다. 그 긴 고통의 끝자락에서 감내할 수 있는 작은 불편함과 함께 부활과도 같은 기적을 만나게 되셨지요.

겨울날 하얗게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면서도 어머니는 온 세상을 하얗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주님께서 사랑 많은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일이라며 감탄하셨던 아가다 어머니.

주위의 사람들에게 끝없이 베풀고 주님처럼 사랑이 많으셨던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어머니. 주일에 아들 며느리 앞세워 미사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감사하셨던 어머니, 음식을 만들어 레지오 단원들에게 다 나눠 주고 정작 우리가 먹을 것은 조금 모자랐던 어머니, 맛벌이하느라 피곤한 며느리가 쉬는 날이면, 낮잠 한숨 자라고 손주의 손잡고 마실 가셨던 어머니.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요셉과 함께 바쳤던 위령기도, 음정도 많이 틀리고 했지만, 그때는 정말 위령기도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요셉과 함께 성모님께 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촌한 과산의 목도에는 공소가 있었고, 준 본당으로 승격하면서 연령회가 구성되어 저는 총무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성당에 뺨이 있을 때는 성당 교우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상주들을 위로하며 연도기도를 수 회에 걸쳐서 바쳤습니다. 연령회장님을 도와 드리면서 입관 예절과 출관 예절도 함께하면서 엄숙하고 장엄한 장례미사도 드렸습니다.

상주 가족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해하시면서 냉담을 풀고 성당미사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하듯 다짐을 제게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 지나고 화사한 봄날의 거리에 서 만난 예쁘게 생긴 어느 자매님이

“총무님! 저 성당에 잘 나가고 있어요!”

하며 말을 건네 오는 자매님을 기억하지 못해

“뉘신지요?”

“저요 저 故 배 000 율리아님 딸이에요!”

“아하!! 성당에 나가신다고 하니 너무 좋은데요, 고맙고 감사하네요.”

진심은 통하고 우리 교우들의 연령을 위한 진실한 기도가 곧 전교가 되는구나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어머님을 생각하곤 한답니다. 돌아보면 제가 어머님께 받은 건 너무나 많고 저는 어머님께 못한 것들만 가득해서 죄송함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나눔과 희생의 삶을 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믿음 생활, 위대하고 고결한 신앙의 유산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체험하셨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제 가슴에도 고이 담고 정성을 다해 살아가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에 이르는 순교로 신앙을 지켰지만,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순교는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되고 그저 신앙을 지키는 것이며, 성당을 다니는 사람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제 아들에게도 물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님 계신 그곳!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시지요?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